

“맛있게 재밌었다”...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성황

목포 문화예술회관 사흘간 열려
정지선·오세득 '스타셰프' 총출동
명인 음식·시군별 다양한 맛 체험
“단순한 먹거리 넘어 즐거운 추억”

“남도하면 ‘미식의 도시’ 아닙니까. 역시 맛있어요. 오길 잘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6살 딸과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열리는 목포문화예술회관을 찾은 김민수(41)씨는 한손엔 아이 손을 잡고 다른 손엔 젓가락과 접시를 들고 있었다.

접시에는 담섬 두조각과 홍어모양빵이 담겨있었다. 스타 셰프 정지선 요리사가 만든 ‘목포 3미 담섬’으로 미나리와 매콤한 소스가 풍미를 더한 요리다.

김씨는 아이와 함께 식탁에 앉아 담섬 한 접시를 게눈감추듯 비웠다. 그는 “소스가 예술이다. 아이가 먹기에는 매울 수도 있겠지만 내 입맛엔 딱이다”며 “최근 정지선 셰프의 팬이 됐다. 솜씨가 궁급했는데, 이렇게 맛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다른 셰프들의 음식도 다 먹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람회에는 전국 각지와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찾아온 방문객으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버스를 빌린 단체 관광객과



가족단위 시민들이 지난 27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남도의 맛! 세계를 잇다' 주제로 열린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 22개 시·군 대표 음식 등을 맛보고 있다. 나건호 기자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많았고, 점심 무렵엔 요리부스마다 웨이팅이 생길 정도로 북적였다.

박람회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전통음식의 다채로운 맛과 향에 감탄했다. 관광객들은 전통의 깊이와 현대적 해석이 조화를 이루는 전남음식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전주에서 왔다는 김해량(31)씨는 “요

리들도 다 맛있지만, 전시된 발효식품들이 마음에 들었다”며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조상의 지혜가 담긴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부모님이 전통장류를 만든다. 과정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기에 이런 행사가 더 뜻깊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박람회는 첫날 김봉화 명인의 집장과 김영숙 명인의 양귀절편을 시작으로, 최

윤자 명인의 모싯잎떡, 임화자 명인의 육포, 마지막 날 천수봉 명인의 홍어무침까지 다양한 명인들의 음식이 선을 보였다.

관광객들은 각 시군의 대표 음식을 맛보고 나누 배식해, 담양 유과, 고흥 오란다, 무안 고구마말랭이 등 다양한 특산물 시식 이벤트에도 참가해 남도의 다양한 맛을 체험했다.

홍보관에는 해남의 전통 장류부터 남해안의 발효차, 화순의 발효떡까지 전남 전역에서 공수한 다양한 발효식품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두부장, 콤부차, 순천 명인차 등 각종 발효음식들을 직접 시식하며 남도의 깊은 맛을 느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인 ‘글로벌 미식존’은 남도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특별한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미슐랭 1스타’ 니시무라 셰프를 비롯한 유명 셰프들이 남도 식재료를 활용해 담섬, 바비큐 덮밥, 라멘, 뼈야아 등 세계 각국의 요리를 남도 스타일로 재해석해 관광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외에도 남도 특산물을 활용한 ‘남도 1호 피자’는 고흥 유자와 영암 무화과를 활용한 독특한 조합으로 주목받았다. 반올림피자와 협업해 하루 1800여 명에게 무료 시식 기회를 제공했다.

28일 진행된 오세득 셰프의 남도음식 다이닝도 성황이었다. 사전에 공모한 사연을 바탕으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남도의 깊은 맛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식사를 제공했다. 구십세가 넘은 할머니에게 남도의 음식을 맛보여주고 싶다는 내용과 아내가 미국으로 떠난 남편을 위해 신청한 사연 등이 관심을 모았다.

3면에 계속 최동환·송민섭 기자

전남일보 ‘제5기 소울푸드 아카데미’ 개강

정치·경제·예술 분야 강사진 구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해법 기대”

광주·전남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발전과 사회 공헌에 기여하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는 정보 교류의 장인 ‘제5기 전남일보 소울푸드 아카데미’가 개강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지난 26일 오후 6시 광주 동구 라마다

플라자 총장호텔 대연회장에서 제5기 전남일보 소울푸드 아카데미 개강식 및 첫 번째 포럼이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개강식에는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을 비롯해 김용권 제4기 원우회장(사회복지법인 진산 이사장), 박병수 광주축산농협 상임이사, 이재훈 법무부 사회성향상 위원회장, 김현성 광주시장에이제육회사 부처장, 오광호 해양에너지 전무, 문용선

금호익스프레스 차장 등 40여명의 원우들이 참석했다.

개강식은 5기 원우들에 대한 소개와 축하, 학기 일정 안내, 포럼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첫 포럼에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미래를 여는 길’이라는 주제로 광주·전남지역 미래 먹거리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전남일보 소울푸드 아카데미는 지역 상생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하려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정보 교류와 친목의 장”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지속 가능한 광주와 전남을 만들기 위한 해법을 찾아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일보 소울푸드 아카데미는 개강식 및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의 강연을 시작으로 최철 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 경제발전론·세계화 전문가인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미국 첫 성

인형 휴머노이드 ‘찰리’ 설계자인 한재권 한양대 로봇공학과 교수,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분야 권위자인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융합학과·첨단기술비즈니스학과 교수, 대우자동차 최연소 이사 출신 한근태 한스컨설팅 대표, 약자의 대변인이자 시민의 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박준영 제심 전문 변호사 등 국내 최고 강사진의 강의로 채워질 예정이다.

▶관려기사 9면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국군의 날... 1일자 신문 쉽니다

2024 '광주천에서 생태힐링 클린워킹해요!' 광주천 생태힐링벨트 클린워킹 대회

일시: 2024년 10월12일(토) 오전 9시

장소: 광주시 북구 두물머리 둔치 (천변우로)

클린워킹 코스:

- A코스 = 두물머리(출발점) <-> 광천1교 <-> 발산교 <-> 양동복개삼가 <-> 광주교(상류반환점)
- B코스 = 두물머리(출발점) <-> 제2광천교 <-> 광암교 <-> 동천교 <-> 유촌교 <-> 상무교(하류반환점)

참가 신청: 2024년 9월 19일(목)~10월 8일(화)까지

1365 자원봉사포털 이용 자원봉사 가능

※참가자 기념품 제공 및 학생 자원봉사 활동(4시간) 인정

참가 문의: 전남일보 사업본부 (062-519-0730)

주최/주관: 全南日報

후원: 영광부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

BLACKYAK

